

제7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(예산)

【2부】 조별토론

| 실천과제 및 주체별 역할 도출 |

마을과 귀농인, 화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

(1)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어떤 방법이 모두에게 좋을까?

: 귀농인 직접지원, 소속 마을 지원, 원주민 역차별 해소 방안

(2) 올바른 토지 정보 제공과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?

: 빈집정보 온/온라인 제공, 이장을 통한 토지매매 정보 제공

(3) 귀농인이 마을과 화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은?

: 마을기금, 마을회의 참석, 마을규약 제정

토론1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, 어떤 방법이 모두에게 좋을까?

■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

쟁점	귀농귀촌인 대상의 직접(현금) 지원사업이 필요하다	
구분	동의	반대
도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귀농인의 <u>초기 창작 어려움 해소</u> ▪ <u>젊은 인구 유입</u>을 위해 필요 ▪ 원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되며, <u>마을 기금 적립에 유용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금 <u>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사</u>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▪ <u>귀농에 대한 개념이 흐려질 수 있음</u> (지원금 용어의 문제) ▪ 원주민 소외감, <u>역차별</u> 발생 가능

■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

키워드	귀농인 직접지원 vs 소속 마을 지원, 원주민 역차별 해소 방안
실천 과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귀농의 명확한 개념 정립</u> 필요 : 단순 이사(농촌 삶을 지향하는 사람 등) 와 귀농의 구분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확한 지원 대상은? ▪ <u>마을단위 지원</u> vs <u>귀농인 개별 지원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 방향은? <p>(추가 실천 과제 도출)</p>

구분	마을	귀농귀촌자	행정·중간지원조직
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			

토론2

올바른 토지 정보 제공과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?

■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

쟁점	땅과 빙 집 정보를 온/오프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	
구분	동의	반대
도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기초 서비스로서 필요 ■ <u>양질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</u>(잘못된 정보 유통 방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의 고액 사기 예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무분별한 정보 노출에 따른 마을의 피해 발생 가능</u> ■ 정보의 낮은 효용성(실제 거래성사는 정보량과 무관, 개인거래 다수) ■ 정보의 <u>유지관리 어려움</u>

쟁점	농촌 마을 땅은 반드시 이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	
구분	동의	반대
도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장의 개인 권한이 아니라 마을 땅을 '<u>공동자산</u>'으로 여기는 문화 <u>형성과 소통</u>의 차원에서 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장의 공정한 역할 전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이장의 권한이 높아짐에 따른 부작용 우려</u> ■ 정보, 거래과정의 다양성 훼손 우려 (창구의 다양화 필요)

■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

키워드	빈집정보 온/온라인 제공, 이장을 통한 토지매매 정보 제공
실천 과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귀농/귀촌자 선별 지원?</u> ■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은? : 매매보다는 <u>임대 유도?</u> ■ <u>정보의 유통과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?</u>(주체 고민) ■ <u>빈집 정비와 관리 방안?</u> ■ 토지 거래를 위한 <u>매뉴얼 정리</u> 필요한가? 그렇다면 <u>누가?</u> (추가 실천 과제 도출)

구분	마을	귀농귀촌자	행정·중간지원조직
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			

토론3

귀농인이 마을과 화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은?

I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

쟁점	새로 이사 오면 마을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	
구분	동의	반대
도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주민이 형성해온 <u>공동자산(노력)</u> 을 존중하여, 타당한 선(고정금액)에서 필요(마을회의 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기금, 찬조금 구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텃세로 여길 수 있음 청년의 경우 수백만 원의 마을기금은 <u>큰 부담</u>이 되어 <u>이주를 막는 원인이 될</u> 수 있음

쟁점	마을회의에 나오지 않는 귀농귀촌인은 주민이 아니다	
구분	동의	반대
도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적 문제를 떠나 <u>불참시 현실상 실제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</u> 주민 공동활동의 기본사항이자 <u>공동 관리 차원</u>에서 회의 참여는 필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 생활 등 <u>삶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</u>하고 구성원의 다양성 필요 회의참여 못함에 따른 다른 방법 도입 고려 필요(예 : 봉사, 찬조금 등)

I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

키워드	마을기금, 마을회의 참석, 마을규약 제정
실천 과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농인 대상 사전 <u>의무 교육</u> 필요(마을에 대한 이해) <u>마을 규약</u> 필요 : 합리적인 금액 산정과 투명한 관리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의 자격은? - 기본 의무 사항은? - 회의 참여 부재시 다른 대체 방안은? <p>(추가 실천 과제 도출)</p>

구분	마을	귀농귀촌자	행정·중간지원조직
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			